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7년도 표어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악한 자에 대한 의로운 심판

(시편 52:1-9)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의인은 자기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영원히 주의 선하심을 찬미하며 주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행악자는 마지막에 자취도 없이 소멸하는 반면, 의인의 최후는 끝없는 찬송입니다. 최후에 노래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시편 가운데 역사적 배경을 가진 시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의 심한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시입니다. 그리고 계속 연결하여 시편51편부터 63편까지는 역사적 상황이 잘 설정된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다니던 무렵, 놈에 들러 제사장 아비멜렉에게서 얻은 진설병으로 요기를 하고 거기에 보관된 골리앗의 검을 구해 가지고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를 지켜본 에돔인 도엑이 이 사실을 확대하여 사울왕에게 보고했고, 사울은 도엑을 시켜 놈에 거주하는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을 몰살하는 참사를 저질렀습니다.

시편 52편은 이 비보를 접한 다윗이 쓴 교훈시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 1. 악인의 행악(1-4절)

다윗은 도엑의 악한 성품을 3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로 도엑은 교만하였습니다. 도엑은 지금 이상한 우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매우 불안합니다. 그는 자만심에 빠져 자기가 불의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엑이 다윗의 얘기를 사울왕에게 보고한 것은 아비멜렉에게 다녀가고서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는 가치 있는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가 자기 목적이 가장 부합된 시간에 그것을 누설한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기회를 잡아 보고한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행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3절). 도엑은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확대하여 사울에게 보고함으로써 선이나 의를 말함보다 악과 거짓을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기 혀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교만과 악을 사랑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혀는 상대적으로 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혀로 악을 폐하고 간사한 말을 할 때 살인까지 하게 되는 악한 것이 됩니다. 사실 혀는 도덕적 중립이 없습니다. 악이 아니면 선의 힘이 됩니다. 시인은 도엑의 혀를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일에 실패하거나 속이는 자들은 정직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약 3:10)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악한 도엑과 같은 죄를 짓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골리앗의 검을 받은 것은 사울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엑은 검 받는 모습만 보고 확대 해석을 하며 사울왕에게 보고했습니다.

### 2. 하나님의 보응(5-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함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7절).

에돔인 도엑은 명석한 자 같으나 무지한 자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에서

출세하기 위해 사울왕에게 아첨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의 목자장이 되었고 더 큰 신임을 얻기 위해 놈에서의 다윗의 동정을 과장하여 보고하므로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까지 폐죽음을 당하게 한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 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5절).

도엑은 의인의 피 값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사울왕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전하게 여기는 그 장막에서 그를 끌어내어 뿌리째 뽑아버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의의 삶으로 살찌우며 희희낙락 할 줄만 알았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두 가지 사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도엑에게 하실 일과 의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 할 때 의인이 할 일이 그것입니다.

도엑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4개의 동사(멸하심이여, 붙잡아, 뽑아내며, 뿌리째 빼시리로다)로 보여집니다. 멸하신다는 것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기갈기 찢긴다는 것은 미친 것을 의미합니다. 도엑은 제사장들의 가족을 파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뽑혀버릴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의인은 두려워하며 악인을 비웃을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함 자기의 악으로 든든하게 하던 자들입니다(7절).

### 3.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8절).

행악자가 불의한 권력을 요새로 삼고 무상한 부귀를 안식처로 생각하며 살다가 자취도 없이 소멸된 것에 반하여 의인은 성소의 뜰에서 자라는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박고 그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며 삽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므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9절).

행악자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공적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영원히 주의 선하심을 찬미하며 주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행악자는 마지막에 자취도 없이 소멸하는 반면, 의인의 최후는 끝없는 찬송입니다. 최후에 노래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장차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 진리를 증거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오늘은 어버이 주일

## 주일예배 시작 전 - 카네이션 달아드리 찬양예배 시간 - 장한 어머니 상 시상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킴과 교회학교 학생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시는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또한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지난 주 순례자에 공고한 대로 세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장한 어머니 상을 시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장한 어머니 상 수상

자로는 4가정이 선정되어 상장과 함께 장기교육보험증을 부상으로 받게 된다.

장한 어머니 상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배진희(김성경), 홍지나(노병호), 김은정(문동진), 김지연(박진철)

# 제7회 한마음 한가족 축제

## 5월24일(목) 안산공대 종합체육관에서

제7회 한마음 한가족 축제가 5월24일(목)에 안산공대 종합체육관에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한마음 한가족 축제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안산에서 열리는 관계로 이동이 불편하여 각 교구에서 선정된 노약자들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이용하고 그 외 모든 성도들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참석하면 된다. 또한 이번 축제동안 출전하는 선수들은 경기 중에만 팀 조끼를 착용하고, 응원단은 지정된 유니폼은 없으나 가급적 자기 팀 칼라(청,백) 셔츠를 착용하고 응원을 위한 소도구(타월, 막대풍선)로 청백팀을 구별하게 된다.

또한 이번 체육대회는 우리교회 대학부 청년부에 속한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모든 경기와 순서를 진행하게 된다. 한마음 한가족 축제를 위한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청팀: 1-7교구 성도 및 교구목사, 예배다부
- 백팀: 8-14교구 성도 및 교구목사, 디아스포라부
- 대회장: 이종윤 목사 · 지도: 정수길 목사
- 준비위원장: 오정수 장로
- 청팀단장: 노문환 장로 · 백팀단장: 김광신 장로
- 청팀응원단장: 최요섭 · 백팀응원단장: 전용식
- 기획진행부: 서문석장로, 김민철, 이승준/정승용, 우령찬(사회)
- 심판부: 박두호장로, 박준희/김상준, 강창진, 김도현, 박성우, 최명훈, 엄지원, 전용천, 최건우, 안정현, 양현진
- 홍보부: 민순구장로, 정치는 /오주명, 고아라
- 기록시상부: 김영준장로, 오명걸, 신혜영(박)은, 이우리, 안지훈
- 재정부: 노송성 장로, 최정희, 이현숙, 조광희 /재정위원
- 동원부: 조성식 장로, 교구간사, 다락방장, 교회학교 부감 전원
- 시설관리부: 성준경 장로, 김지홍, 하상영, 정성우, 김경태
- 봉사부: 정병무장로, 김영희 집사 외 빌립, 안드레 선교회 전원
- 의료부: 김대호 장로, 박동원 집사 외 김영주, 정철웅, 김희복, 최미희 집사, 서지영
- 차량안내부: 최학인 장로, 차량안내위원 전원
- 음악부: 신용식 장로, 한대석, 윤요셉, 김성주 외 찬양팀 전원

# 다양한 은혜의 시간으로 준비되는 2007 흥해작전

I 부: 기도사경회 / 6월6일(수)-10일(주) / 강사: 김정복 목사  
 II 부: 부흥사경회 / 6월11일(월)-16일(토) / 강사: 김성봉 목사  
 III 부: 성경통독사경회 / 6월17일(주)-25일(월) / 강사: 교역자  
 -기간 중 매일 새벽 5시 본당에서-

2007년 흥해작전은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은혜의 시간으로 준비된다. 평양대부흥운동은 사경회운동, 기도운동, 회개운동, 부흥운동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우리교회는 2007년 흥해작전을 평양대부흥운동과 같이 기도와 말씀공부, 회개와 전도의 장으로 준비하기로 하였다.

**1부** - 6월6일(수)부터 10일(주)까지 5일간 김정복 목사가 강사로 기도사경회를 인도하여 참여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기도의 불을 붙이며 회개가 일어나고,

**2부** - 6월11일(월)부터 16일(토)까지 6일간 김성봉 목사가 강사로 서는 부흥사경회로 모여 기도사경

회로 심령에 회개 기도의 불길이 이는 성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삼게 된다.

**3부** - 기도와 말씀을 풍족히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다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성경통독사경회로 모이게 된다. 성경통독사경회는 우리교회 교역자들이 강사로 선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은혜의 장으로 준비되는 흥해작전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 회개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도록 기도한다.

# 제9대 장로 후보 선출 위한 제직회

##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우리교회는 오는 5월27일(주) 공동의회에서 제9대 장로 10명을 선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늘은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제직회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공동의회에 올릴 후보 20명을 공천하게 된다. 제직회 시간에 배포될 투표용지는 10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제직들의 투표를 돕기 위해 배포되는 2007년 섬김위원 요람을 참고하여 인수집사, 시무권사, 협동장로 중 10명을 투표용지에 기록하여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당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이를 개봉하여 20명을 인준하고 20일자 순례자에 배수공천된 20명을 득표순으로 발표하게 된다.

은혜 가운데 제9대 장로 선거일정이 진행되도록 기도한다.

# 영아부 신설

## 12개월 미만 영아대상으로

현재 우리교회의 유아부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부터 5세 아동까지 함께 교육을 받고 있어 영아들이 Baby sitting 이상의 교육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

출산 장려를 하며 영아를 바르게 키우고 돌보려는 우리교회 교육정책에 맞춰 영아부를 5월20일(주)부터 403호실에서 신설하기로 하였다.

영아부 대상은 0세부터 1세(12개월)의 어린이로 이해순 권사가 부장, 박창희 권사가 부감으로 우리교회 부목사 사모 전원이 교사로서 섬기며 박금실 전도사가 유아부를 겸임하면서 지도자로 하고 말씀과 기도로 어린이들을 양육하게 된다.

# 열린프로그램 수료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교사양성반, 교구일꾼양성반, 세계선교대학

지난 3월 중에 개강하였던 열린프로그램이 10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수료한다. 세계선교대학 2단계 수료자들은 총회가 발행하는 수료증을 받게 된다.

### ▷ 교사양성반 (22명)

김수원 김창훈 김태삼 박영애 박정란 박희석 배준길 서수녀 서양지 손용문 신종건 안미경 유혜숙 이경희3 이덕진 이종숙 이종미 이지동 이태주 정기자 조숙자 하정

### ▷ 교구일꾼양성반 (8명)

김명화 박길희 박성희 백난희 우미란 이인숙 최미희 홍정란

### ▷ 선교대학 (40명)

<2단계 이수자-총회 수료증 발급>

정동화 전수자 민마리아 홍승자 이영숙 이현주 김혜중 문옥일 김인수 이영기 노제현 박정임 은기장 최형렬 이규정

<1단계 이수자>

최종희 송행희 최금숙 박희래 장호림 강석조 경은숙 이준호 박순복 이종숙 박진주 김진희 박 숙 진경자 김금준 노재균 이상호 정병수 김정희 이순영 이관규 김형상 장애순 콕미숙 조광희

이현숙 성도(13교구)



나의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엄마!  
엄마께서 떠나신지 3개월이 되어 가네요.  
모든 것 다 놓으시고 가신 그 곳 천국은 행복만이 있으시겠죠? 그토록 엄마를 괴롭고 힘들게 하였던, 엄마의 영혼이 담겨 있었던 육체도 이제 가벼운 날개가 되어 편안한 휴식만 있으신거죠?

엄마! 사랑해요.  
살아 계실 때 쉽게 고백하지 못하고 이제야 외쳐 봅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 정말로 보고 싶어요. 아파트 앞마당 공원만 바라봐도 눈물이 절로 솟아요. 길을 가다 머리 하얀 어르신만 봐어도 엄마 생각이 간절해서 눈물이 나요.

엄마 떠나신 빈자리는 너무도 크고 공허 하답니다. 집안 구석 구석 온통 엄마의 발자취가 남아 있어 엄마가 더욱 그리곤 해요. 베란다에 놓인 2개의 향아리에는 엄마의 정성이 가득 담긴 된장과 간장이 있고 그 된장과 간장을 떠서 먹을 때마다 엄마의 향기를 맡곤 하지요.

엄마가 잘 가꾸시던 난에도 7월 4송이나 피었다졌네요. 냉동실에 가득 쌓인 찹어 놓은 마늘, 이를 동안 쉬지 않고 절구질을 하셔서 만드신 작품이지요. 하나씩 꺼내 먹을 때마다 엄마의 절구질 하시던 모습이 떠오르곤 해요. 저의 잔소리를 들어가며 주으셨던 은행알도 가끔 삼계탕 할때 넣어 먹으며 집안에 냄새 풍긴다고 싫어했던 저의 행동이 후회 스럽기만 하네요.

일곱 자식중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절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끝내 못잊어 제 곁으로 돌아오셔서 하셨을 기도는, 저를 위한 구원 이셨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저 또한 아이 들을 낳은 엄마임에도 제 나이와 엄마 나이를 잊은 채, 언제나 투정과 어리광으로 엄마

#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둘게요

그렇게 쉽게 떠나실지 정말 몰랐어요. 살갗계 한 번, 다정하게 한 번, 어릴때의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정말로 잘 대해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제 철이 들어 엄마를 모시고 교회에 가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떠나시다니 너무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이제 전, 엄마의 소망을 간직하며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엄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마께서 끝까지 예수님 같은 사랑으로 저를 안아 주셔서 제가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답니다. 아직 믿음이 다 자라지는 않았지만 엄마처럼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며 살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것이며, 똑같은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어요. 엄마께서 제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잊지 않겠으며 그만 눈물을 거둘게요. 천국에 가면 만나볼 수 있으니 세월을 아끼며 살다가 엄마곁으로 가겠어요. 엄마.

엄마! 감사드립니다..사랑해요.

를 힘들게만 했었죠. 그 연세에도 그 연약했던 다리로도 아이들을 애지 중지 업어서 키워주셨던 엄마, 그렇게 노환으로 쓰러져 걸지도 못하게 되신걸...너무 힘들어서 그러셨던 걸... 딸 아이의 늦잠이 방해 될까봐 일요일 아침도 굶으시고 시간도 되기전 일찍 교회로 발걸음 하시던 엄마, 교회에 가면 맛있는 점심 먹을 수 있다며 몰래 현관문을 빠져 나가시던 엄마의 모습이 제 가슴에 못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가셔서 절 위해 기도 하셨을 테지요.

용서하세요 엄마, 이렇게 후회할 것을 이렇게 가슴이 두 동강이 날 것을 어찌 그리 둔하게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노환으로 쓰러진지 6개월 만에

그렇게 쉽게 떠나실지 정말 몰랐어요. 살갗계 한 번, 다정하게 한 번, 어릴때의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정말로 잘 대해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제 철이 들어 엄마를 모시고 교회에 가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떠나시다니 너무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이제 전, 엄마의 소망을 간직하며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엄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마께서 끝까지 예수님 같은 사랑으로 저를 안아 주셔서 제가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답니다. 아직 믿음이 다 자라지는 않았지만 엄마처럼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며 살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것이며, 똑같은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어요. 엄마께서 제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잊지 않겠으며 그만 눈물을 거둘게요. 천국에 가면 만나볼 수 있으니 세월을 아끼며 살다가 엄마곁으로 가겠어요. 엄마.

엄마! 감사드립니다..사랑해요.

만민에게 전도 - 루디아 양로원 방문



최종의 집사 (루디아전도회 회장)

하나님 은혜 가운데 루디아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루디아의 이름처럼 순종하며 섬김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 봉사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모인 루디아!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이면 수요1부 예배 후 식당에 모여서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며 목요일 아침이면 차에 싣고 천호동에 있는 양로원으로 갑니다.

이곳 소리 선교원은 앞 못 보시는 목사님과 오갈데 없는 서너 명의 할머니들이 기거하시며 생활하시고 7-80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울동과 순백 치며 찬양을 한 후 예배를 드리면 주방에서는 음식을 준비하여 식사를 대접해 드립니다.

어느 권사님께서는 양로원 갈 때 쓰라고 후원금도 주시고 손수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며 떡, 과일, 사랑 등으로 후원하는 루디아 집사님들의 아름다운 손길이 있기에 작지만 후원금도 드릴 수 있고 힘들지만 봉사의 기쁨을 알기에 섬김을 다하는 루디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버이날이 있는 5월 맛있게 준비해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파스한 봉사과 섬김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 해 봅니다.



이에리자 성도 (신혼가정부)

나의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동틀씨와 제가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운지가 어느덧 7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랜시간 인내와 눈물의 기도로 저에게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되는 시부모님과 시댁식구들을 허락해 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때가 생각이 나네요. 신실하신 주님께서서는 예정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소중한 남편과 또한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허물없이 서로 잘 지내보자'고 하였던 정말 다정하시고 자상하신 시부모님을 허락하심에 얼마나 감사

# 기도의 동역자

드린지 모릅니다.

바쁜 직장생활과 대학원 공부로 시간을 자주 함께 하지 못하여 늘 송구스런 마음뿐입니다. 부족함 투성인 며느리를 항상 염려해 주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사회에서 리더가 되라고 늘 격려해 주시며 무엇보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시부모님이 계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든든한지요...

지난 번 어머님께서 현재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두 분 부모님께서 가족을 위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오시고, 지금은 그로 인해 육신이 많이 쇠약해 지셔서 괴로우시다고 하실 때면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프답니다.

부족함 많지만, 이제 며느리도 맞으셨으니 모든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더욱 건강하시며 남은 생애동안 아버님 어머님께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처음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남은 여생동안 기도의 동역자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된 가족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 기도대장이신 우리 할머니

저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할머니를 사랑합니다.

우리할머니 연세는 80세이지만 비가오나 눈이 오나 하루같이 새벽 기도에 빠지는 날이 없습니

다. 우리할머니는 날이 다 잘 때 기도하시러 교회에 가시고 말씀 읽는 시간으로 하루를 보내십니다. 우리할머니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우리 할머니가 천국에 가시면 할머니 집은 하늘 궁전 일 것 같아요. 천국은 오색 찬란한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도로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12가지 실과가 맺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천사 같은 7빛광사 드레스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는 우리 할머니를 생각할 때 천사처럼 너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할머니가 부르시지만 하여도 금방 내가 여기 있다 하시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 기도는 잘 이루어 지는 것 같아요.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께서 기



**우리 할머니 천국에 가시면 할머니 집은 하늘궁전 일 것 같아요.**

도만하시면 다 나오니까요.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언니에게 전화가 와도 수화기 붙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할머니는 기도대장입니다.

할머니께서 가정예배 드릴 때도 기도가 너무 너무 길게 하셔서 가끔 잠잘 적도 있었어요. 나도 할머니처럼 오래 오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우리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 방학 때면

할머니 따라 새벽기도에 나가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오래 오래 살게해주세요. 내가 커서 할머니 기도해 드리고 훌륭한 사람 되어 할머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 드리는 할머니 손녀딸 되겠습니다.

할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손녀딸 소은드림

## 찬양대원 세미나 열려 5월18일(금) 오후 7시 101호

5월18일(금) 오후 7시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찬양위원회(위원장: 김광신 장로) 주최로 찬양대원 세미나가 열린다.

이날 강사는 송자 박사(전 연세대 총장)가 서며 '나는 왜 찬양대원인가'란 주제의 강연을 한다. 송박사는 대학총장, 정부의 장관을 지내면서도 자기가 섬기는 찬양대원의 직분을 평생직으로 알고 섬기고 있다. 우리교회 모든 찬양대원은 필히 참석하고 관심있는 성도들도 참석하여 은혜로운 시간으로 삼기바란다.

### KIMCHI · 한국교회갱신연구원 한국기독교 문화진흥원과 통합운영된다

우리교회는 부설 한국교회 갱신연구원과 KIMCHI를 우리교회가 인수한 한국 기독교 문화진흥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설립목적은 더욱 효과적으로 이를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4일(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한국동문화 확대위원회를 소집한다. 15일(화) 군선교(일반) 교역자 훈련 특강을 한다. 18일(금) 군선교 35주년 기념 예배 시 권면을 한다.
- 사무장로들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원로·은퇴 장로 위로회를 14일(월)에 갖는다.
- 득남: 6교구 박형호 신은경 집사
- 득녀: 3교구 문동진 김은정 집사 가정
- 이사 : 박기남/강영순 집사(6교구) : 강서구 화곡3동 푸르지오 아파트 139동 1102호. T. 2605-8659
- 서영세 권사(6교구) : 강서구 화곡1동 346-58 동궁빌라 301호. T. 2601-4936
- 주간 식당 봉사: 마리아전도회(5.13) 에스더전도회(5.20)
- 금주의 식사 : 김현영 집사 최현민 권사, 신정일 집사, 여영숙 권사 가정(자녀결혼 감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호산나 학교 입상 서울 정신지체인 사생대회에서

지난 4월19일 과천에서 열린 서울 정신지체인 사생대회에서 우리교회 부설 호산나 학교 학생들이 입상 하였다.

그림 주제는 자유그림- 봄 풍경 그리기로 총 68개 기관에서 1,702명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 대회에서 초등 5학년 강선아 학생이 은상, 초등 5학년 전민호 학생이 입선, 중고등 2학년 서민규 학생이 동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앞으로 많은 대회에 참석하여 우리 호산나학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원감 이동귀 박사는 강조한다.

## 디아스포라 영어교실을 Rainbow English Academy for Diaspora Leaders(READ)로 변경

우리교회는 국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현재 강의가 진행 중인 '디아스포라 영어교실'의 이름을 Rainbow English Academy for Diaspora Leaders(READ)로 개명하고 북한민주화 운동본부와 협력하여 운영하게 된다.

현재 디아스포라 영어교실은 학생 8명, 교수 3명(오영숙 권사, 김인수 집사, 서명철 목사)으로 매주 월, 화, 목요일 3일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성경적 가정관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2. 한마음 한가족 전교인 체육축제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3. 제9대 장로선출 과정에서 시험받는 사람 없도록
4. 제15차 KIMCHI세미나 위하여
5. 2007 흥해작전 승리하도록

#### ■ 교회오시는 길

